

# 세계적 자원개발 전문기관 대한광업진흥공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본사 전경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박문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최대의 자원개발 전문 기관이다.

특히, 경영혁신과 고객만족 서비스에 관한 한 공기업 가운데 단연 정상권이다.

광진공이 표방하는 단계적 경영목표는 세계적 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이 되는 것이다.

## 강한조직 · 최고의 인재보유

광진공의 장점은 자원개발 원샷(One shot)지원을 위한 최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원체제는 자원개발 프로세스상 ▲탐사 ▲개발 ▲연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서비스별로 자금, 기술, 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다.

그리고 광업관련 정보력도 막강하다.

자원정보수집과 함께 이를 해외로 송출하는 국내 유일의 자원정보 제공 창구도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력면에서 단연 자원전문가 집단으로 꼽힌다.

기술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76.6%,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가 21.7%로 직원 대부분이 자원개발 관련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광진공의 지식자산은 총자산 대비, 현재 44%

## 최고의 인재 · 기술 · 경영실현



**박 문 수(朴文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우리 대한광업진흥공사는 1967년 민영광산의 합리적 개발과 해외 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종합 조성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광물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과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자원산업에 대한 기술, 정보 및 자금의 종합지원기관이라는 이미지 형성과 해외자원개발에서의 축적된 경험, 기술능력 등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외자원개발진출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정부투자기관중 가장 모범적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1본부2처6부1사업소 조직축소와 81명의 인력감축을 완료하였으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비핵심사업퇴출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난해 공기업 경영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정부투자기관 최초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 광물자원개발 사업

을 비롯한 해외 광물자원개발, 석재산업 육성, 자원정보 및 지식컨설팅등 4개 주요사업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략광물의 해외 직접개발 투자확대입니다.

이를위해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등 6개사업에 직접투자를 완결하고 인도네시아 파시르 유연탄광등 민간기업에 개발자금 540억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남북 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우리공사내 남북 광물자원 협력개발 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중에 있습니다.

셋째, 신규광채 발견을 위한 전국토 정밀탐사입니다.

우리공사는 오는 2005년까지 신규매장량 5억톤(잠재가치 6조6천억원)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국내 비금속광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공사 임직원 일동은 국내외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지원·육성을 통한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전임직원이 최고의 인재육성, 최고의 기술확보, 최고의 경영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다.

1차 목표인 오는 2004년까지 지식자산을 55%로, 2차 목표인 2009년에는 무려 65%까지 높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국내 자원개발의 내실화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 광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 있는 광산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에 집중적으로 지

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 광업은 부존이 빈약하며 경제 구조적으로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난, 비용상승, 개발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 결과 기존 업체들의 광업개발 포기 및 신규광업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발전에 필요한 에너지·광물자원의 대부분을 단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진공은 이러한 국내 광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고비용·저효율의 개발방식으로 국내 광업의 존립자체가 어렵다고 판단, 굴진·채광·선광분야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광진공은 지난 1990년부터 일반광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91년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신예미 철광산 등 4개 광산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23개 광산에 지원을 완료했다.

그 결과 기존방식으로는 광업경영이 불가능한 광산들을 현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부존자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오는 2001년~2010년까지 10년간 사업비 730억원(보조금 360억원)을 투입하여 석회석등 5개 광종으로부터 9,170억원을 창출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광진공은 국내 자원개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 오는 2009년까지 일반광 1인당 생산성을 1.9배 달성



공사창립 33주년 이래 최초로 열린 「한마음 연찬회」. 5월 21·22일 양일간에 걸쳐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가진 연찬회 행사중 박문수사장이 부서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 '99년 98백만원→2009년 186백만원)하고 이어 효율적인 광업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400억원에서 2009년에는 450억원으로, 현대화개발 광산은 23개 광산에서 2009년 30개 광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광진공은 최근 「국내 자원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이란 보고서를 만들어 자원산업의 현황 및 특성, 그리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자원산업은 “부존자원을 활용한 최대의 이익창출”을 근간으로 추진해야 되며, 아울러 부존광종중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경쟁력이 있는 비금속광물을 중점지원 해야된다고 했다.

또, 광진공은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비금속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정제 기술개발 및 시설지원 확대로 수입소재 광물의 국산화 대체에 주력할 방침이다.

##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1977년도부터 지난해말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총33개국 21개광종을 대상으로 111개 사업에 진출하여 '99년말 현재 24개국 14개 광종에서 61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에는 조사사업이 12개국 7개광종 20개 사업이며, 개발사업은 18개국 13개 광종 41개사업, 나머지 종료된 사업이 21개국 16개광종, 50개 사업이다.

※ 참고로 올 3월말 현재는 58개사업(조사18, 개발40)이 진행중에 있음.

광진공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원료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5대 전략 광종인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철등의 개발수입율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에 위치하고 있는 태영석회(주) 삼도광업소 현장. (이 광산은 연간 70만톤의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직접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99년말 현재 직접 개발 사업은 7개 프로젝트이며 오는 2009년에는 15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투자액은 '99년 126억원에서 2009년에는 1,772억원으로 증액되며 2009년에는 7천5백만불의 생산지분이 확보된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연간 10백만불의 사업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융자지원금도 올해 540억원에서 2009년 1,270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투자환경과 광물자원 시장 동향 등 자원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정보센터 구축을 올해말까지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정보제공 업무를 시작한다.

## 광진발전 연구기획단 발족

광진공은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사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광진발전 연구기획단을 지난 6월 7일 발족하고 전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광진공 박문수사장은 광진공이 초일류 투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모두가 합목적적 사고를 가지고 일치단결 하여야만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모두 공유해서 공사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기획단은 광진공의 21세기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진공은 세계적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21세기 통일조국의 초석역할이 될 북한 광물의 탐사·개발·교역의 선두주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는 전략을 수립키 위해 자체내 남북 광물자원 협력개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광진공은 미래의 사업형태를 다음과 같이 취하고 있다.

- ▲개발부문 : 자원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의 자원개발 총괄지원 및 공사의 직접 개발과 혼합하는 형태
- ▲용역부문 : 자원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분석, 관련분야에 지식컨설팅 사업수행
- ▲유통부문 : 자원의 가공, 수출입, 비축 및 제품분야 진출로 산업원료광물의 수요와 공급의 완충역할
- ▲금융부문 : 자원개발 채권발행, 프로젝트·벤처·리스금융 등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금융업무 수행과 자원수급 안정을 위한 선물거래 등 특수 금융업무